

순천, 청년정책 500억 투입 ‘청년친화도시 도약’

일자리·주거·교육 등 5개 분야 106개 사업 추진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 지역 특화 인재 발굴 육성

순천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청년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약 500억 원 규모의 ‘2025년 순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관리 등 5개 분야 106개 사업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청년친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인재를 육성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적극 나선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캠퍼스를 구축하고 글로벌 아

카데미 운영과 창작공간 조성으로 지역 특화 인재를 교육·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된 인재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업 유치, 인건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18세부터 45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청년 농어업인 지원,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저소득 여성 청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청년들이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를 목표로 청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협의체 위원들은 청년 정

책에 대한 각종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주환경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보성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열린다

내달 3~5일까지 자연이 선사하는 봄의 절경

보성군은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최대 철쭉 군락지로 손꼽히는 웅치면 일림산 일원에서 ‘제21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발 667m의 일림산은 호남정맥의 끝자락 남해를 품은 명산으로, 산 전체를 뒤덮은 150ha 규모의 연분홍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봄철 대표 관광지다.

특히,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철쭉 능선은 ‘한 폭의 그림 같다’라는 찬사를 받으며, 매년 수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보성의 자연과 문화

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기획됐다. △일림산 정상에서 보성군의 변영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례, △일림산의 사계와 생태를 담은 산림 문화 사진 전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목공백의 끝자락 남해를 품은 명산으로, 산 전체를 뒤덮은 150ha 규모의 연분홍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봄철 대표 관광지다.

특히,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철쭉 능선은 ‘한 폭의 그림 같다’라는 찬사를 받으며, 매년 수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보성의 자연과 문화

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기획됐다. △일림산 정상에서 보성군의 변영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례, △일림산의 사계와 생태를 담은 산림 문화 사진 전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목공백의 끝자락 남해를 품은 명산으로, 산 전체를 뒤덮은 150ha 규모의 연분홍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봄철 대표 관광지다.

특히,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철쭉 능선은 ‘한 폭의 그림 같다’라는 찬사를 받으며, 매년 수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보성의 자연과 문화

광양 ‘신규직원 멘토-멘티 결연식’ 개최

선·후배 간 네트워킹 통해 멘티의 공직 적응 돕는다

광양시는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 신규직원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양시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규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선배 공무원이 업무와 조직 생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제도다.이를 통해 신규공무원은 관련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선배 및 동기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해 공직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신규공무원 39명과 선배 공무원 10명이 참여해 멘토링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멘토링은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되며, 참여자들은 매월 1회 모임을 갖고 다른 지자체의 우수 정책 사례를 견학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광양시는 멘토와 멘티의 직무 향상과 정서 함양을 위해 ‘지역의

반란’, ‘출근길 심리학’, ‘2000년생이 온다’ 등 공직자가 읽어야 할 추천 도서 10권을 선정해 독서토론 활동을 장려하고, 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 팀을 시상할 계획이다.

정인화 시장은 “지방 공무원은 애함심뿐만 아니라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공무원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일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의 만남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광양시의 시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광양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는 아름답고 생산적인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의 ‘신규공무원 멘토링’은 도입 20년째를 맞이했으며, 지금까지 총 15회, 188개 팀, 775명의 공무원이 참가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광양, 집중안전점검 6월 13일까지 실시

광양시가 소방서, 공사·공단, 안전관리자문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 동안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대규모점포 ▲요양시설 ▲전통시장 등 총 67개소이며, 공무원과 건축·전기·소방·가스·산업안전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이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긴급 보수·보강과 사용 제한·금지 등의 긴급안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관내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시민들이 직접 시설물이나 거주지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제작·배부해 자율점검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조선훈 광양시 안전과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는 생활 속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 점검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자치포럼’ 성료 공직자 소통 역량 강화

보성군은 지난 10일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말하기와 글쓰기’를 주제로 제372회 보성자치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성자치포럼에는 정치·행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서갑원 전 국회의원과 대통령 연설비서관 출신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진 강원국 교수가 초청돼 조직 내 역할, 리더십, 소통 역량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를 펼쳤다.

서갑원 전 국회의원은 ‘조직에서의 나의 역할, 그리고 리더십’을 주제로, 공직자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 조직 내 실질적인 리더십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조직의 리더십은 직위가 아니라 일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라고 강조하며, 국정 운영과 지역 정치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해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강원국 교수는 ‘공직자의 말하기와 글쓰기, 그리고 팔로어십’을 주제로, 대통령 연설문을 집필했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자가 갖춰야 할 말과 글의 원칙과 전략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곧 말하기와 글쓰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직자의 기본 자세를 짚어 호응을 얻었다.

조상래 곡성군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챌린지 동참

곡성서 2개 종목 궁도·에어로빅합합 경기 개최

조상래 곡성군수가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시장·군수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며 대회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13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대축전 경기가 배정된 전남 시·군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남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펼쳐



지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생활 체육 행사이다.

곡성군에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곡성을 문화체육관광 및 반구정

에서 에어로빅 합합, 궁도 등 2개 대회가 열리며, 선수단과 임원을 포함하여 1000여 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고, 도시미관 개선, 홍보탑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고 있으며,

특히, 숙박·음식점·교통·주차·자원봉사 등 대회 전반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회를 준비 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원활한 경기 진행과 경기장을 찾는 선수단 및 응원단의 불편 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곡성=홍경백 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주요 사업장 40개소 현장점검 실시

정책 제감도 높이고 주민 의견 반영한 실효성 있는 행정 추진



구례군은 지역 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주요 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주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장별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화염사지구 환경개선, 지조봉 산악자전거 코스 조성 등 관광자원화 사업, ▲농촌유학타운, 청년하우스 조성 등 인구 활력 사업, ▲계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

선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사업, ▲서시천 문화체육공간 조성, 봉성군란공원 종합정비사업 등 주민 편의시설

정비 등 지역 발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고루 포함됐다.

또한, 올해 초 진행된 마을순회 ‘구들장 대화’에서 주민들이 직접 건의한 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폈다.

현장에서는 각 사업장의 추진 현황, 예산 집행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공사 지연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관련 부서와 즉시 협의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김순호 군수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현장 중심의 꼼꼼한 점검과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례=오광범 기자

최대원 광양시의장 “이순신대교,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국도 승격 촉구 결의안 채택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장이 제안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결의안’이 지난 10일 구례에서 열린 제302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순신대교는 2013년 개통 이후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의 핵심 물류 통로로서, 하루 평균 2만여 대의

대형 화물차가 통과하는 국가 기간 산업의 중추적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며,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물류 효율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재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비는 전라남도(33.3%), 여수시(42.7%), 광양시(24%)가 분담하고 있

으며, 그비용은 2014년 12억 원에서 2025년에는 약 8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유지비용을 떠안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도 59호선의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내까지 연장하고, ▲이순신대교와 국가산단 진·출입 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켜 국가가 유지·관리 책임을 직접 부담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대원 의장은 “국가산단에서 막대한 국세가 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재정 책임은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다”며,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이라고 강조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곡성, 쌀 전염병 예방 ‘범씨 온탕소독’ 지원

곡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술센터에 ‘범씨 온탕소독장’을 설치하고,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

범씨 온탕 소독은 고품질 쌀 생산의 첫걸음으로 낱알 정도로 버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벼잎선충 등 종자 전염성 병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온탕 소독을 위해서는 우선 탈망기나 소금물 정선을 통해 충실한 범씨를 선별한 뒤 완전히 건조된 범씨를 준비해야 한다. 이후 60℃ 물에 10분간 담갔다가 찬물에 20~30분간 식히는 방식으로 소독을 마친다.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범씨를 적정량인 10kg 이하로 나눠 그물망에 담고, 물 순환이 원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소독 중에는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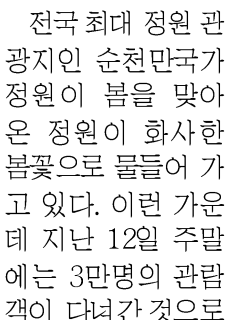
또한 친환경 재배 농가의 경우, 온탕 소독 후 석회유황합제(22% 액)를 50배로 희석해 24시간 침지 처리하면 키다리병 방제 효과를 99% 이상 높일 수 있다.

온탕소독장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곡성군 농업기술센터(☎061-360-8861) 또는 7개 면사무소(목과면·석곡면)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홍경백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꽃이 피는 자연 속 힐링명소 주목

노을정원 등 봄꽃 장관…주말 3만명 관람객 다녀가



전국 최대 정원 관광지인 순천만국가정원이 봄을 맞아 온 정원이 화사한 봄꽃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주말에 3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물결치듯 흐르는 툼피로 물든 노을정원, 바람개비처럼 펼쳐진 툼피이인상적인 네덜란드정원,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색깔이 가득한 스페이스허브까지 각양각색의 포토스팟이 관광객을 맞이하며 아름다운 봄날의 기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원을 하나의 거대한 풍경화처럼 감상하며 걷다 보면, 정원 곳곳에 자연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이색 공간들도 눈길을 끈다.

/순천=조순의 기자



호수정원 앞에 설치된 풍금은 디지털 시대 속 느린 감성을 전하며 자연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내고, 비오톱 청보리밭 한가운데 놓인 흑두루미 조형물은 자연과 생명의 의미를 담아내며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포토존으로 주목받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단순한 꽃구경을 넘어,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리듬 속에서 삶의 여유와 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순천=조순의 기자